釋讀口訣에 쓰인 '支'의 形態와 機能에 대하여

南豊鉉*

要約

借字表記의 ᄎᆞ는 鄕歌와 釋讀口訣에서 比較的 널리 쓰이었으나 그 解讀이 극히 어려운 것이었다. 釋讀口訣에서 ᄎᆞ는 '如'의 訓인 'ᄎᆞᄂᆞ-'와 그 副詞形 'ᄎᆞ'의 表記에 널리 쓰이었고 〈華嚴〉와 〈華嚴〉에서는 副詞形接尾辭와 末音添記 등에도 쓰였다. 그러나 〈金光〉과 〈瑜伽〉에서는 [如]ᄎᆞᄂᆞ-와 [如]ᄎᆞ의 表記에만 制限되어 있다.

ᄎᆞ는 〈華嚴〉에서는 一貫되게 쓰였으나 〈華嚴〉에 와서는 動搖되어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 傳統漢字音으로 '지'인 ᄎᆞ와 ㅈ(止)가 〈華嚴〉에서는 'ᄉᆞ/디'로 교체되는 現像을 보여 준다. 이는 ᄎᆞ와 ㅈ가 借字表記에서는 '디' 音으로 읽히었음을 말하여 준다.

〈華嚴〉와 〈華嚴〉에 쓰인 ᄎᆞ는 형용사 [如]ᄎᆞᄂᆞ-, 그 副詞形으로 [如]ᄎᆞ, 副詞形 接尾辭(故ᄎᆞ 등)로 쓰이었고 離ᄎᆞ-의 경우에는 末音添記로, ᄂᆞᄆᆞᄎᆞ효에서는 조동사로 쓰이었다. 末音添記를 제외한 'ᄎᆞ/디'는 依存名詞 'ᄃᆞ'와 語原을 같이 하는 것이다. 또 依存名詞 'ᄃᆞ'와 뜻이 같은 補助形容詞 'ᄃᆞ-'를 想定하여 이 形態에서 副詞形 'ᄎᆞ/디'가 나온 것으로 보았다. 이 ᄎᆞ가 '如'의 訓으로 쓰이는 한편, '똑 같은 것', '同一한 그것', '바로 그것'의 뜻을 나타내는 敍法인 如實法으로 발전한 것으로 把握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鄕

* 檀國大 名譽敎授

歌를 비롯한 차자표기 자료를 해독하는 데도 응용되기를 기대한다.

核心語: 形容詞 [如]ᄒᆞᆫ-, 副詞形의 ᄒᆞ/디, 末音添記의 ᄒᆞ, 補助形容詞 *ᄃᆞ-, 如實法, 鄕歌解讀.

1. 序言

借字表記 資料는 三國時代부터 남아 있어 古代國語 硏究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古代國語의 지식으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적지 않다. 借字表記에 나타는 '支'의 形態와 機能도 그러한 예이다.

'支'의 用例는 鄕歌에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데 그 기능에 대한 견해는 解讀하는 이들에 따라 구구하였었다.[1] 여기에 근래에 새로 제안된 것이 指定文字說이었다. 이는 '支'자가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의 앞에 나오는 차자를 '訓으로 읽을 것'을 지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설이다. 이는 1字1音의 原則에 의하여 향가를 해독해야 한다는 原理의 하나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향가의 해독이 15世紀 國語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이 이론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필자는 鄕藥救急方에서 鄕名表記에 사용된 '烏支/가마오디'와 '𠀋支/맏(>맣)'의 해독에서 이 支자를 '디'로 읽은 바가 있다(拙著(1981) 58 및 88면 참조). 그러나 鄕歌에 나타나는 '支/攴'자의 다양한 용법을 鄕藥救

1) 金完鎭著(1980, 30면)에서는 과거 여러 해독에서 鄕歌表記에 나타나는 'ᄒᆞ'를 구구하게 읽어왔던 사실을 들고 'ᄒᆞ'와 '攴'를 구분하여 '攴'을 指定文字로 보았다. 필자는 종래의 見解대로 '攴'는 'ᄒᆞ'의 異體字로 보고 구분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고 이 글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急方의 단편적인 용법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하여 兩 資料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웠었다. 이밖에 若木淨兜寺造塔形止記(1031)에서 인명의 표기에 쓰인 支자의 예가 있다. '金富多支', '金漢多支'가 그것으로 이는 固有語로 作名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讀法과 뜻을 정확히 집어내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釋讀口訣 자료가 계속 발굴되면서 支자의 용례도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舊譯仁王經上(이하 <舊仁>)의 釋讀口訣에서는 그 용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후에 발견된 瑜伽師地論卷20(이하 <瑜伽>)과 合部金光明經卷3(이하 <金光>)에서 支의 용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如'자의 訓을 표기하는 데만 쓰여 鄕歌에서의 다양한 용법에 비교하면 매우 단조로운 것이었다. <舊仁>에서는 '如'자의 訓이 일관되게 'ㅣㆍ/다ᄒᆞ-'로 표기되어 <瑜伽>와 <金光>의 '支'도 이 'ㅣ/다'의 異表記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華嚴經卷14(이하 <華嚴>)와 華嚴經疏卷35(이하 <華疏>)의 釋讀口訣이 잇달아 발굴되자 支의 용법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 이 차자가 단순히 'ㅣ/다'의 표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用法이나 機能은 후대의 國語와 直接的으로 連結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들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나는 자료를 통하여 '支'의 讀音과 機能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借字表記 전반에 나타나는 '支'의 용법을 考究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난 支의 用例

먼저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나는 支의 용례를 검토하여 이 資料가 보여 주는 현상들을 고구해 보기로 한다. 字吐釋讀口訣에서는 支만이 나타나고 支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支자를 약간 흘리어 쓰는 경우가

있으나 그 자형을 ᄎᆞ와 구별하려고 한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먼저 '如'자에 懸吐된 例에서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1-0. [如]ᄎᆞᄉᆞ-

1-1a. 菩薩摩訶薩ㄱ [是]ㅣ [如]ᄎᆞᄉᆞㄱ 念ᄒᆞ 作ᄉᆞᄂᆞᆯᄃᆞ<華疏8,19>

1b. 當願衆生 深ㅣ 經藏ᄋᆞ 十 入ᄉᆞᄋᆞᄉᆞ 智慧ㅣ 海 [如]ᄎᆞᄉᆞᄒᆞᄐᆞ<華嚴3,15>

1c. 第二 發心ㄱ 譬ᄉᆞㄱ 大地ㅣ (一切法)事ㅡᄂᆞᆯᄃᆞ 持ᄃᆞ [如]ᄎᆞᄉᆞᄃᆞㄱᄉᆞᄆᆞ 故ᄂᆞ 是ᄒᆞ 名ᄒᆞ ᄃᆞ波羅蜜因ㅡᄂᆞᄒᆞᄀᆞ<金光2,1>

1d. ᄀᆞ必ᄉᆞ 能ᄀᆞ 正性離生ᄋᆞ 十 趣入ᄂᆞᆯᄃᆞᄆᆞ 餘ㄱ 前ᄒᆞ 說ᄂᆞㄱ [如]ᄎᆞᄉᆞᄃᆞᄋᆞᄉᆞ丨(瑜伽 23,4>

이 [如]ᄎᆞᄉᆞ-는 <舊仁>을 제외한 字吐釋讀口訣 전반에 걸쳐 널리 나타나고 있다. 이 [如]ᄎᆞᄉᆞ-에 대하여는 '如'자를 不讀字로 보고 ᄎᆞᄉᆞ-가 그 全訓讀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 왔다. 여기서는 ᄎᆞ에 ᄉᆞ-가 연결된 문법이 주목되는데 이는 ᄎᆞ가 用言의 副詞形, 또는 語根에 해당되는 것임을 말하여 준다.

다음의 예들은 ᄎᆞ가 부사형으로 쓰인 것이다.

1-2. 如ᄎᆞ

2a. 菩薩ᄃᆞ 涅槃ᄒᆞ 實勿 [如]ᄎᆞ 知ᄂᆞᄒᆞᄂᆞᆯᄒᆞ丨<華疏18,4>

2b. 若ᄂᆞ 諸ㄱ 菩薩ㅣ [是]ㅣ [如]ᄎᆞ 用心ᄉᆞᄒᆞᄃᆞᄋᆞᄉᆞㄱ<華嚴8,16>

2c. 是 [如]ᄎᆞ 第四心ㅣ 退轉ᄉᆞᄃᆞ 不ᄉᆞᄉᆞᄃᆞㄱᄉᆞᄆᆞ<金光2,5>

2d. [於]是 [如]ᄎᆞ 心 安住ᄉᆞᄒᆞᄂᆞ 時ㅡᄒᆞ <瑜伽25,21>

이는 [如]ᄎᆞ가 [如]ᄎᆞᄉᆞ-의 副詞形으로 쓰인 예들로 <華疏>, <華嚴>, <金光>, <瑜伽>에 쓰인 것들이 확인된다. 한편 [如]ᄎᆞᄉᆞ-의 부사형으로 [如]ᄎᆞᄉᆞᄋᆞ가 쓰인 예들도 있다.

1-3a. [此]ㅣ 菩薩ㄱ 亦ᄉᆞᆫ 上ᄭᅴ 說ᄒᆞᆯᄊᆡ [如]ᄎᆞᆷᄌᆞᆷ 輪王ᄀᆞᆮ 位ᄌᆞᆷ ᄒᆞᆫ 處ᄉᆞᆫ ᄌᆞᆷ <華疏12,8>

3b. 當ᄒᆞ 普賢 [如]ᄎᆞᆷᄌᆞᆷ 色像 第一ㅣᆫᄃᆞ 一切 行願ᄂᆡ 皆ᄀᆞᆮ 得ᄌᆞᆷᄭᅥ 具足ᄉᆞᆫᄃᆞ<華嚴2,15>

3c. 譬 虛空ᄀᆞᆮ 及 轉輪聖王ᄀᆞᆫᄭᅴ [如]ᄎᆞᆷᄌᆞᆷ <金光2,17>

<舊仁>에서는 如와 若의 訓讀을 'ㅣᄉᆞᆫ/다ᄒᆞ-'로 현토한 예들만 나타난다.

1-4a. 是 [如]ㅣᄉᆞᆫᄃᆞ 是 [如]ㅣᄉᆞᆫᄌᆞ 汝ᄅᆞ 解ᄉᆞᆫᄀᆞ 所ᄌᆞ [如]ㅣᄉᆞᆫㅏ <舊仁11,22>

4b. 菩薩ㅣ 衆生ᄂᆡ 化ᄂᆞᆫᄭᅴ [爲] 此 [若]ㅣᄉᆞᆫㅏᄉᆞᆫᄃᆞᄒᆞ <舊仁14,14>

이 ㅣᄉᆞᆫ-는 앞에서 검토한 ᄎᆞᆷᄉᆞᆫ-의 後代形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ᄎᆞᆷᄉᆞᆫ-가 ㅣᄉᆞᆫ-의 뜻에 해당하는 '똑같다, 同一하다'의 뜻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15세기에는 용언 '다ᄒᆞ-'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그 부사형 '다히'가 종종 쓰임을 볼 수 있다.

1-5a. 부톄 舍利弗 ᄃᆞ려 니ᄅᆞ샤ᄃᆡ 됴타 됴타 네 말 다ᄒᆞᄂᆞ라<月釋12:35a>

5b. 太子ㅅ ᄠᅳᆮ 다히 호리이다.<釋譜11,20>

에서 '다ᄒᆞ-, 다히'의 용례를 볼 수 있다. 이 형태들도 15세기로서는 古語的인 표현이고 흔히는 'ᄀᆞᆮᄒᆞ-' 또는 '답-'이 쓰였다.

이상으로 'ᄎᆞᆷᄉᆞᆫ-, ㅣᄉᆞᆫ-, ᄀᆞᆮ-, 답-'이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2-0. 故ᄎ

2-1a. [此]ㅣ 菩薩ㄱ [是]ㅣ 事 有ᄒᆞᄀᆞ入ᄆ 故ᄎ [是]ㅣ 事 有ᄒᆞᄀᆞ [是]ㅣ 事 無ᄒᆞᄀᆞ入ᄆ 故ᄎ [是]ㅣ 事 無ᄒᆞᄀᆞ<華疏1,5>

1b. 菩提ᄂᆡ 證ᄒᆞᄀᆞᄉᆞ [欲]ᄒᆞᄉᆞᄆᆞ入ᄆ 故ᄎ 而ᄆ 發心ᄒᆞᄂᆞᄀᆞㅣᄀᆞ<華嚴9,15>

1a)와 1b)는 因果關係의 接續詞 '故'에 ᄎ가 현토된 것이다. 이 故ᄎ는 <華疏>와 <華嚴>에만 나타나고 후대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故ᄃᆞ가 널리 쓰임을 볼 수 있다.

2-2a. 我ᄋᆞ [等]ㅣᄉᆞᄀᆞᄀᆞ 風ᄀᆞ 欽ᄒᆞᄆᆞᄒᆞᄂᆞᄆᆞᄆᆞ入ᄆ 故ᄃᆞ 來ᄉᆞᄒᆞᄉᆞᄒᆞ [此]ㅣᄆᆞ 至ᄃᆞᄆᆞᄒᆞᄂᆞㅣ<華疏12,11>

2b. 衆生ᄀᆞ 悉ᄒᆞ 免離 使ㅣ[欲]ᄉᆞ 故ᄃᆞ 出家ᄉᆞᄒᆞᄉᆞᄒᆞ 解脫ᄀᆞ 得ᄒᆞ<華嚴18,17>

2c. 一 非ᄋᆞᄒᆞ 異 非ᄋᆞᄃᆞᄅᆞ 故ᄃᆞ 名ᄒᆞ 續諦ᄉᆞᄂᆞᄒᆞᄀᆞㅣᄒᆞ<舊仁14,8>

2d. 彼ᄆᆞ 正ᄒᆞ 修行ᄉᆞᄒᆞᄉᆞᄒᆞ 轉ᄉᆞ [令]ㅣᄒᆞᄂᆞᄒᆞᄀᆞㅣᄒᆞᄒᆞᄂᆞᄆᆞ入ᄆ 故ᄃᆞ 彼ㅣ 正法行ᄀᆞ 修習ᄉᆞᄉᆞᄒᆞ 時ᄒᆞᄀᆞ<瑜伽16:5>

故ᄃᆞ의 예는 <華疏>, <華嚴>, <舊仁>, <瑜伽>에 나타나지만 극히 드물게 쓰였다. 그러나 <華疏>와 <華嚴>에서는 비록 頻度는 떨어지지만 故ᄎ와 함께 쓰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故ᄃᆞ가 故ᄎ와는 다른 뜻을 가진 형태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金光>, <舊仁>, <瑜伽>에서는 故ᄎ가 안 쓰이는 반면 故ᄂᆞ가 자주 쓰였다.

2-3a. 破戒ᄒᆞ 過失ᄂᆡ 皆ᄒᆞ 淸淨ᄉᆞᄒᆞᄀᆞ入ᄆ 故ᄂᆞ 是故ᄆ 二地ᄂᆡ 說ᄆᆞ 名ᄒᆞ 無垢地ᄒᆞᄂᆞᄒᆞᄀᆞ<金光7,1>

3b. 菩提 空ㅅ ㄱ ㅅㄹ [以]ㅣ ㅅㅁ 故ㄴ 得ㅎ 衆生 空ㄹ 置ㅅ ㅎㄴㅇㅜㄱ ㅅㅁㅣ<舊仁15,13>

3c. 奢摩他支 成熟ㅅ ㄱ ㅅㅁ 故ㄴ 亦 名ㅜ 慧成熟ㅓㄴㅇㅜㅣ <瑜伽6,16>

이들 故支, 故ㅈ, 故ㄴ의 기능을 비교하면 '支'의 기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論하기로 한다.

3-0. 則支

條件法을 나타내는 則支도 支의 쓰임을 보여 주고 있다.

3-1a. 若ㄷ 自ㄹㅁ 以ㅣㅎ 受用ㅅ ㄱ ㅣㅜㄱ 則支 安樂ㅅㄹ 延年ㅅㄹㄴㅔㅎㅎ<華疏10,6>

1b. 若ㄷ 諸ㄱ 菩薩ㅣ 善支 其 心ㄴ 用ㅅㅂㅌㅅㄱ 則支 一切勝妙功德ㄴ 獲ㅂㅜㅛ<華嚴2,13>

이 則支 역시 <華疏>, <華嚴>에만 나타난다. <華嚴>에서는 支의 표기를 생략하고 則만으로 쓰이는 例가 자주 나타난다.

3-2a. 若ㄷ 得ㅣㅎ 諸ㄱ 根 淨ㅅㅣ 明利ㅅㅂㅌㅅㄱ 則 能 惡知識ㄹ 遠離ㅅㅂㅜㅎㅎ<華嚴 10,21>

<華嚴>에서 則자가 쓰인 용례는 모두 78예가 있으나 經의 앞 쪽에 쓰인 13例가 則支로 쓰이고 그 뒤의 65例는 支가 없이 쓰였다. 이는 <華嚴>의 시대인 12세기 초에 支의 쓰임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金光>에서는 則자가 2번 쓰였는데 그 중의 1 例가 則ㄴ로 쓰이고 있다.

3-3a. 當ㅅ 此 如支ㅅㄷㄱ 經典ㄴ 精勤 修行ㅅㅁㅜ[應]ㅌㅅㄱㅜ 則ㄴ

法ㄴ 久ᄒᆞ[於]世ㅋㅓ 住ᄉᆞᄆᆡ白ᄒᆞᄀᆞ丁ノᄒᆞナᄀᆞᄆᆡㅣンヒハニㅣ<金光15,15>

이 則ノ는 字吐釋讀口訣에 쓰인 유일한 例이지만 접속사 故ノ의 용례와 대비해 보면 이 당시의 문법에서 흔히 쓰이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則ᄉᆞ와 則ノ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4-0. 卽ᄉᆞ

1a. [是]ᄆᆡ 念ㄴ 作ᄆᆞ 已ᄉᆞンロンᄀᆞ 卽ᄉᆞ 便ᄆᆡ [之]ᄆᆡㄴ 施ノカ<華疏12,4>

2a. 波斯匿王ᄀᆞ 卽ㄹ 神力乙 [以]ᄉᆞᄒᆞ 八萬種ヒ 音樂乙 作ンニカ<舊仁3,4>

2b. 此 修對治乙 當ハ 知ㄱㅣ 卽ㄹ 是乙 修習瑜伽ナノᄒᆞᄆᆡᄀᆞ丁<瑜伽13,1>

卽ᄉᆞ는 副詞語로 쓰인 것인데 <華疏>에 3번 쓰였고 <華嚴>에는 '卽'자가 쓰이지 않아 나타나지 않는다. <舊仁>과 <瑜伽>에는 卽ㄹ(ㄱ)로 나타나고 있어 시대적인 차이를 보여 주기도 하지만 앞의 故와 則의 예로 볼 때 卽ᄉᆞ의 시대에도 이 卽ㄹ(ㄱ)가 공존하여 의미상의 차이를 보여 주었던 것이 자료의 제약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0. 今ᄉᆞ

5-1a. 我ㅋ 今ᄉᆞ [此]ᄆᆡ 有ヒᄀᆞ 所ヒ 飮食ㄴ 受トㄱᄀᆞㅅᄀᆞ<華疏,9,15>

2a. 今ンᄀᆞ 我ᄀᆞ 亦ンᄀᆞ 當ハ [於]往昔ᄒᆞㅓ 同ンᄒᆞハ<華疏10,4>

2b. 佛子ᄉᆞ 汝ᄀᆞ 今ンᄀᆞ 饒益ノᄆᆞ 所 多カ 安隱ノᄆᆞ 所ᄒᆞ 多ナᄀᆞㅅㄴ ᄆᆞ <華嚴2,11>

3a. 謂ᄆᆞ 我ㅋ 我ᄀᆞ 今ㅂ[者] 何ㄱ 所ᄒᆞㅓ 在ンムᄀᆞᄆᆡᄒᆞヒロンᄆᆞ 不ㅎ

ノ王ㄱ ㅣ ㅋ セ ㅣ ンア矢ㄉ[耶]<瑜伽8,18>

4a. 今ハ 此 義ヒ 中ㅋ 十 意ㄱ 法し 緣ノ今セ 光明し 以ホ……<瑜伽11,4>

4b. 今ハㄱ ㅈ 始ノ 得ノㄉ<금광6:23>

今支는 <華疏>에 유일하게 나타난다. '今ノㄱ'이 <華疏>, <華嚴>, <舊仁>에 널리 쓰였다. <瑜伽>에는 今ㅂ와 今ハ가 쓰였는데 이 둘은 같은 형태의 異表記로 보인다. <金光>에는 今ハㄱ ㅈ의 예가 한번 쓰였다. ハㄱ ㅈ는 조동사 'ハ/기-'의 활용형으로 보인다.

여기서 今支, 今ノㄱ, 今ハ는 각각 뜻이 구별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0. 能支

6-1a. 能支 一切 衆生ㄱ 語言音聲し 分別ノア 不可盡故<華疏19,19>

1b. 諸ㄱ 法相し [如]這 悉ㅋ 能支 通達ノㄉ<華嚴2,15>

<華疏>와 <華嚴>에는 副詞 能支의 용례가 여럿 나타나지만 그 밖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華嚴>에서는 간혹 支를 갖지 않은 能이 쓰이기도 한다.

6-2a. 若 能 法ㄱ 永ㄷ 滅ノロㄱ 不矢ヒㄱ入ㄱ 知ヒア入ㄱ <華嚴11,16>

이는 支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앞의 則, 卽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能支와 같은 기능을 하는 能矢가 <華嚴>에 여럿 나타나고 <舊仁>과 <金光>에서도 용례를 볼 수 있다.

6-3a. 信心ㅣ 退轉ア 不ンヒア入ㄱ 彼人ㄱ 信力ㅣ 能矢 動ノㅋ今 無ヒ

ᄒᆞ가<華嚴10,19>

3b. 十千人ᄅᆞ十 問ᄒᆞᄂᆞᆫᄃᆞᆫᄃᆡ乙 能矣 答ᄒᆞᄃᆡᄉᆞᆸᄀᆞᆫ 者 無ᄇᆡᄒᆞᄂᆞᆫᄃᆡ<舊仁3,3>

3c. 三昧ㅣ 傾動ᄒᆞᄉᆞᆸᄀᆞᆫ [可]ᄒᆞᆫ 不矣ᄇᆡ人 能矣 摧伏ᄒᆞᄅᆞᄉᆞᆸ 無ᆫ 聞持陁羅尼人ㅣ<金光7,2>

한편 같은 副詞語로 能ㅣ矣가 쓰임을 볼 수 있다.

6-4a. 一切 世間ㅣ 能ㅣ矣 嬈亂ᄒᆞᄋᆞᆸ 無가<華疏23,12>

4b. 難ㅣᄋᆡ 得ᄋᆞᄇᆞ 親近ᄒᆞᄆᆞᆺᄒᆞᆯ 能ㅣ矣 制伏ᄒᆞᄋᆞᆸ 無ᄒᆞᆯ 量ㅣ 無ᄒᆞᆯ<華疏,24,14>

이 能ㅣ矣는 부사어로 쓰인 것인데 能支와는 意味上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ㅣ矣 형태는 '不能ㅣ矣<화소9:1-3>, 非ㅣ矣<화엄9:10-11>, 堪ㅣ矣<화엄20:5>'와 같이 能자 이외에도 쓰인 것이어서 能支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金光>과 <瑜伽>에서는 能矣에 대응하는 能ᄀᆞ가 널리 쓰이고 있다.

6-5a. 是 如支 第六心ㅣ 能ᄀᆞ 生死大闇乙 破滅ᄒᆞᄂᆞᆫᄃᆞᆫᄉᆞᆷ 故ㅣ<金光2,9>

5b. 先下 說ㅣᄂᆞᆫ 所乙 如ㅅ 漸次ᄆᆞᆷ 能ᄀᆞ 解脫 圓滿ㅣ{令}ㅣᄂᆞᆫᄃᆡ<瑜伽7:15>

이상으로 보면 <華疏>에는 能支만이 나타나고 <華嚴>에는 能支와 能矣가 함께 나타난다. <舊仁>에는 能矣가 1 예만이 나타나는데 이는 <舊仁>의 量이 제한되어 있는 데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金光>에서는 能矣와 能ᄀᆞ가 함께 쓰였으나 能ᄀᆞ의 使用頻度가 높다. <瑜伽>에서는 能ᄀᆞ만이 쓰이는데 그 使用頻度가 높다.

이들은 모두 15世紀 國語의 '能히'에 해당하는 것인데 能支, 能矣, 能ᄀᆞ의 형태로 나타나서 古代國語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5세기 국어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能ᄀᆞ는 古代國語 안에서도 오히려 후기의 형태로 보인다. 能支와 能矣는 同一한 資料인 <華嚴>에 나타나서 同一한 形態의 異表記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支의 音이 矣와 같은 音이거나 매우 가까운 音임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7-0. 善支

7-1a. 善支 句義ㄴ 分別ㅅ尸 不可盡故<華疏19,15>

1b. 當ㅅ 願入ㄱ 衆生ㄱ 善支 [於]佛ㄴ 事ㅅ白ᄒᆞᄉᆞ<華嚴2,20>

이 善支도 副詞로 쓰인 것인데 <華疏>에 4회, <華嚴>에 10회 사용되었다. <舊仁>과 <瑜伽>에는 이 단어가 善ᄀᆞ로 나타난다.

7-2a. 諦ㅣ 聽ᄉᆞ 諦ㅣ 聽ᄀᆞ 善ᄀᆞ 之ㄹ 思ᄉᆞᄆᆞ 念ᄉᆞᄆᆞᄉᆞᄀᆞ<舊仁3:19>

2b. 諸 隨煩惱ㄹ 復ㅅ 現行ㅅ尸 不ᄉᆞᄒᆞᄉᆞᄉᆞ 善ᄀᆞ 念住ㄹ 守ᄉᆞᄀᆞ<瑜伽19,7>

善ᄀᆞ는 비교적 자주 쓰여 12세기 전반기의 華嚴經 계통에 쓰인 善支가 13세기에는 善ᄀᆞ로 대체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8-0. 年支

이 年支는 오직 한 예만이 나타난다. 15세기의 '낳(年)'의 주격형에 해당한다.

8-1a. 佛子ᄒᆞ [此]ㅣ 菩薩ㄱ 年支 方ㄷ 少沮ᄇᆞᄆᆞ 盛ㄷᄆᆞᄉᆞᄀᆞ<華疏10,15>

여기서의 ᄉᆞ는 말음첨기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9-0. 離ᄉᆞ-

9-1a. 當願衆生 正法界ᄋᆞᆫ 住ᄒᆞᄉᆞᄆᆞ 諸ㄱ 罪難乙 離ᄉᆞᄇᆞᆮ<華嚴5,4>

1b. 當願衆生 我諍ᄇᆞ 心乙 離ᄉᆞᄆᆞᄆᆞ 忿恨ᄂᆞᆫ 無ᄇᆞᆮ[有]<華嚴5,6>

이 離ᄉᆞ-는 동사로 쓰인 것인데 <華嚴>에만 10회 나타난다. <華疏>에는 離가 동사로 쓰일 기회가 없어 나타나지 않았다. 離ᄉᆞ의 ᄉᆞ는 동사 '離'의 訓讀末音을 添記한 것으로 보인다. 15세기의 '여희-'에 대응하는 고대어의 어떤 형태를 이 離ᄉᆞ가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9-2a. 當願衆生 永ᄃᆞᆫ 一切 不善ᄇᆞ[之] 業乙 離ᄇᆞᆮ<華嚴6,18>

2b. 瑕穢无[有]ᄒᆞ 隨煩惱乙 離ᄒᆞ 廣ㅣ 說ᄂᆞᆫ 乃ᄋᆞ 至ㅣ 不動乙 獲得ᄂᆞ ᄒᆞᄂᆞᆫ<瑜伽19,17>

2c. 聖諦現觀ᄋᆞᆫ 入ᄂᆞᆫ 已ᄋᆞᄂᆞᆫ斤 諸 障导乙 離ᄂᆞᆫ<瑜伽20,5>

이들은 末音添記를 하지 않은 것이거나 '離'를 音讀한 것이다.

10-0. 免ᄉᆞᄇᆞᆮ

10-1a. 衆生ㄱ 家性ㅋ 空ᄂᆞㄱ ᄉᆞᆨ乙 知ᄋᆞᄒᆞ 其 逼迫乙 免ᄉᆞᄇᆞᆮᄂᆞᄆᆞᅔᆞᆫ<華嚴2,20>

免ᄉᆞ-는 동사로 쓰인 것이 1 예 나타난다. 15세기 이후에는 免의 訓과 音을 '면할 면'으로 나타내고 있어 固有語의 訓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 免에는 '離'의 뜻이 있는데 1a)에서도 그 뜻으로 쓰인 것이어서 15세기 국어의 '여희-'에 대응하는 고대어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11-0. 元矣支ㅣ亽

11-1a. 信ㄱ 道ᄋᆞᄅᆞᄆᆞᆫ 元矣支ㅣ亽 功德ᄋᆞᆫ 母ㅣ尸 [爲]ᄉᆞᆸᄂᆞᆫᄃᆞᄒᆞᄂᆞᆫㄱ <華嚴 9,20>

이 '元'은 15世紀國語의 '읏듬'에 해당한다. 이 '읏듬'에 대응하는 형태가 '元矣'까지인지, '元矣支'까지인지는 언뜻 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元矣支'까지를 명사로 보면 末音添記를 두 글자나 한 것이 되어 우리가 보아온 表記原則과는 어긋난다. 元矣까지를 '읏듬'에 대응하는 형태로 보고 支는 그에 이어지는 문법형태로 보고자 한다.

12-0. ᄂᆞᄆᆞ支立

12-1a. 父母ㅣ 孝事ᄂᆞᆺᄀᆞㅣᄒᆞᆫㄱ 當ᄉᆞ 願ᄉᆞᆨㄱ 衆生ㄱ 善支 [於]佛ㅣ 事ᄉᆞ白ᄋᆞᄉᆞᄒᆞ 一切ㅣ 護ᄂᆞᆯ 養ᄂᆞᆯᄂᆞᄆᆞ 支立<華嚴2,20>

1b. 妻子 集會ᄂᆞᆺᄀᆞㅣᄒᆞᆫㄱ 當願衆生 怨親平等ᄋᆞᄉᆞᄒᆞ 永亡 貪著 離支ᄆᆞ支立<華嚴2,21>

ᄂᆞᄆᆞ支立의 支는 어미들의 중간에 들어 있어 어미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설명될 것이다. 이 用例들은 <華嚴>의 第2張 20行에서부터 22行의 3행까지만 나오는 것이다. 이 부분은 華嚴經의 淨行品으로 菩薩이 修行해야 할 141항목 가운데 2, 3, 4번째 항목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항목에도 마땅히 支가 쓰여야 할 것인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서도 뒤에 논할 것이다.

이상에서 支의 여러 용례들을 검토하였다. '如'의 훈 '支ㅣ-'의 표기, 부사(접속사)의 형성, 語尾들에 섞여 배열된 것, 末音添記 등으로 쓰인 것이 확인된다. <華疏>, <華嚴>에 다양하게 쓰였고 그 이후의 자료에는 '如'의 훈을 표기하는 데만 쓰였다.

3. 支의 讀音과 意味

3.1. 支의 讀音과 形態

鄕歌解讀에서 支의 讀音은 '기', '히', 'ㄷ'으로 읽힌다는 說, 虛字說, 指定文字說 등이 있어 왔다. 이러한 여러 說의 존재는 그 讀音과 機能을 추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음을 말하여 주고 있다. 釋讀口訣의 支의 경우도 15世紀 國語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能支, 能矣, 能尸가 같은 副詞의 기능으로 쓰였는데 <華疏>에서는 能支만으로 쓰이던 것이 <華嚴>에서는 能支와 能矣가 혼용되었음을 보아 왔다. 이는 支와 矣는 같은 音이거나 매우 가까운 音이라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支와 矣(知)의 우리의 16세기 傳統漢字音은 '지'와 '디'로 구별되는데 이는 중국의 中古 이후의 한자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支와 知의 中國 上古와 中古의 漢字音은 다음과 같이 추정되고 있다.

13-0. 支音과 '知'音의 推定

	Kalgren	周法高
支;	tiĕg/ʦie/chī	·tjieᵡ/tsɪ
知;	tiĕg/tie/chī	·tieᵡ/tɪ

中國의 中古漢字音에 근거하면 '支/지'와 '知/디'로 달리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上古漢字音에 바탕을 두면 '支'도 '디'로 수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借字의 音은 中國의 中古漢字音에 바탕을 둔 우리의 傳統漢字音과는 맥락을 짓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支/디'의 경우도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支'의 음을 '디'로 추정하는 근거를 뒷받침하여 주는 것으로 ᄃᆞ와 ᄉᆞᆺ의 교체가 있다. 이들은 '佛'자의 訓의 末音을 添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4-0. '佛ᄃᆞ'와 '佛ᄉᆞᆺ'

1a. 一ㄱ 佛ᄃᆞ 出世ᄉᆞᄒᆞ 授記乙 說ᄒᆞᅀᆞᄀᆞㄱ丁<華疏20,14>

1b. 一切 佛ᄃᆞ 所ᄒᆞ十 悉ᄒᆞ 得ᄒᆞᄉᆞ 親近ᄉᆞᄂᆞᅀᆞᄀᆞㅣ<華疏23,16>

1c. 當願衆生 佛ᄃᆞ 出家ᄉᆞᄒᆞᅀᆞᄀᆞㄹᆞ十 同ᄉᆞᄒᆞᄒᆞ 一切乙 救護ᄉᆞᄒᆞᄑᆞ立 <華嚴3,13>

1d. 去來今ㄴᆞ 諸ㄱ 佛ᄃᆞ{之} 道ᄒᆞ十 住ᄉᆞᄀᆞ<華嚴2,14>

1a)는 佛ᄃᆞ가 <華疏>에서 主格으로 쓰인 예이고 1b)는 屬格으로 쓰인 예이다. 1c)는 <華嚴>에서 佛ᄃᆞ가 主格으로 쓰인 예이고 1d)는 屬格으로 쓰인 예이다. <華疏>에서는 佛ᄃᆞ만이 쓰이지만 <華嚴>에서는 佛ᄃᆞ는 위의 2 예만이 나타나고 그 밖의 예는 모두 佛ᄉᆞᆺ로 나타난다.

14-2a. 彼人ㄱ 佛ᄉᆞᆺ 不思議ㅣㅣᄒᆞᅀᆞᄀᆞㅅ乙 信ᄉᆞᄒᆞᄒᆞᄀᆞ<華嚴10,15>

2b. [於]十方ㄴᆞ 諸ㄱ 佛ᄉᆞᆺ 所ᄒᆞ十ᄉᆞᄒᆞᄒᆞ 灌頂乙 受ᄒᆞᄉᆞ<華嚴14.2>

2a)의 佛ᄉᆞᆺ는 주격으로 쓰인 것이고 2b)는 속격으로 쓰인 것이어서 佛ᄃᆞ와 佛ᄉᆞᆺ는 같은 형태의 異表記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傳統漢字音에서 ᄃᆞ(止)의 音은 '지'였었다. 추정된 중국의 上古音과 中古音을 보면 다음과 같다.

14-3a.

	Kargren	周法高
止	ʈiəg/tśi:/chï	tjəɣ/tśi(ㄓ)

이를 보면 ᄃᆡ(止)를 우리의 上古漢字音으로는 '디'로, 中古漢字音으로는 '지'로 차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은 ᄃᆡ(止)의 傳統漢字音은 '지'이지만 차자표기에선 上古漢字音 '디'로 읽히게 된 연유를 설명하여 준다.

이로써 中古時代에 '支'로 表記되던 것이 近古時代에 와서 ᄎᆡ(知)로 교체되었다고 보면 ᄎᆡ와 ᄌᆡ는 同一音이었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음이 차이가 있었는데 언어변화에 의하여 同一音으로 合流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제기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ᄎᆡ의 音을 '디', ᄌᆡ의 音을 '디1'으로 구분하고 좀더 확실한 근거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音은 頭音으로 'ㄷ'음을 가졌었다는 점은 분명히 해 둔다.

3.2. '如'의 訓 'ᄌᆡᄉᆞ/디ᄒᆞ-'와 'ᄀᆞᆺ/다ᄒᆞ-'

釋讀口訣에서 '如'자의 訓이 <華疏>, <華嚴>, <金光>, <瑜伽>에서 ᄌᆡᄉᆞ-, ᄌᆡ로 나타나지만 <舊仁>에서는 'ᄀᆞᆺ/다ᄒᆞ-', 'ᄀᆞᆺᄋᆞ/다ᄒᆞ아'로 나타나고 있음은 앞에서 보아 왔다.

이 '如'는 8세기의 吏讀에서 이미 '다'로 읽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1a. 坐中 昇 經 寫在如<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755>
1b. 經心內中 一收 舍利ᄭᅴ 入內如<上同>

이는 '如'가 終結語尾 '다'음의 표기에 사용된 것이다. 이는 8세기에 '如'의 訓으로 用言인 '다(ᄒᆞ)-'가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如가 '다'음을 표기하는 것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져 왔다.

'ᄀᆞᆺ/다ᄒᆞ-'는 '如ᄌᆡᄉᆞ-'가 활발하게 쓰인 <華疏>와 <華嚴>에서도 '等'자의 訓으로 사용되었다.

15-2a. [我]ㄨ [等]ㅣㅅㄱㄱ 風し 欽ヒロヒノ尸入ㅠ 故ム 來ㅅㄱ尓<華疏12,11>

2b. 婆羅門ㅅ 乾闥婆ㅅ 阿修羅ㅅㅅ尸 等ㅣㅅㄱㅋㅅ<華嚴8,18>

이 '等'은 多數(複數)를 나타내는 小品詞로 쓰인 것인데[2] 이것을 우리의 釋讀口訣에서는 '同一'의 뜻을 나타내는 同動詞로 釋讀하여[3] 'ㅣㅅ/다ᄒᆞ-'로 읽은 것이다. 이 '等'에 대하여 'ㅣㅅ-'로 표기하는 全訓讀表記는 <華疏>와 <華嚴>에만 나타나고 그 이후의 文獻에는 'ㅣ'의 표기를 생략한 '等ㅅ-'로만 나타난다.

복수를 나타내는 '等'은 新羅時代의 吏讀에서 의존명사 'ᄃᆞ'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고[4] 高麗時代의 吏讀에서도 이 'ᄃᆞ' 音의 표기에 자주 쓰이고 있다. 이는 '等'자가 新羅時代에는 15세기 국어의 複數接尾辭 '돌ㅎ'에 대응하는 형태로 읽혔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는 同一 漢字에 대한 訓이 時代나 宗派에 따라 달랐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11세기말 내지는 12세기초의 釋讀口訣인 <華疏>와 <華嚴>에서 '[等]ㅣㅅ/다ᄒᆞ-'가 쓰이고 있는 사실은 이미 이 시대에 '如'의 뜻을 갖는 단어로 'ㅣㅅ-'도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如'를 한결같이 'ᄒᆞㅅ/디ᄒᆞ-'로 읽은 것은 이 釋讀口訣의 '如'에 대한 訓이 保守的이라고밖에는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 즉 'ㅣㅅ-'와 'ᄒᆞㅅ-'는 신라시대부터 類義語로서 공존해 오던 것인데 'ᄒᆞㅅ-'가 'ㅣㅅ-'에 합류되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保守的으로 'ᄒᆞㅅ-'가 쓰여 온 것으로 본다.

---

2) 楊伯峻著, 波多野太郎外譯(1956), 中國文語文法, 江南書院, 日本東京. 66面 참조.
3) 太田辰夫著(1981), 中國語歷史文法, 朋友書店, 日本京都. 194面 참조.
4) 拙著(2000), 吏讀硏究, 태학사, 307면 및 403면 참조.

3.3. '支/디'의 意味

그러면 여기서 'ᄎᆞᆫ/디ᄒᆞ-'와 'ㅣᆞᆫ/다ᄒᆞ-'가 같은 뜻을 나타내게 되는 機制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如'의 뜻을 나타내는 15세기 국어의 'ᄃᆞᆮᄒᆞ-'에 대응하여 高麗時代 釋讀口訣에서는 'ᄉᆞᄆᆞᆫ/딧ᄒᆞ-'가 있음을 보기로 하자.

16-1a. 幻師ㅣ 幻法ㅣ 見尸ᄉᆞᄆᆞᆫᄀᆞ<舊仁15,9>

이 '見尸ᄉᆞᄆᆞᆫᄀᆞ/볼 딧ᄒᆞ아'의 'ᄉᆞᄆᆞᆫ/딧ᄒᆞ-'가 如의 뜻으로 쓰인 것인데 釋讀口訣에선 유일한 용례이다. 그러나 高麗時代의 順讀口訣에선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16-2a. 又似從明暗生ᄉᆞᄆᆞᆫᄀᆞ 非根生也ᄒᆞᄆᆞᆫᄃᆡ<素谷本楞嚴經1a,13>
2b. 猶如二手ㅣ 冷熱ㅣ 相涉ᄒᆞᄆᆞᆫᄀᆞ 兩無定勢ᄂᆞᄉᆞᆺ<南權熙本 楞嚴經 3b,5>
2c. 如眼ㅣ 有見ㅁ 不能觀眼ᄒᆞᄆᆞᆫᄀᆞ<南權熙本 楞嚴經11b,10>

2a)의 ᄉᆞᄆᆞᆫᄀᆞ는 원문의 '似'에, 2b)의 ᄒᆞᄆᆞᆫᄀᆞ는 '猶如'에, 2c)의 ᄒᆞᄆᆞᆫᄀᆞ는 '如'에 호응하는 것으로 '같다', '똑같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ᄎᆞᆫᆞ-, ㅣᆞᆫᆞ-, ᄉᆞᄆᆞᆫᆞ-의 뜻이 15세기의 'ᄃᆞᆮᄒᆞ-'에 대응하는 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의존명사 'ᄉᆞᆺ/ᄃᆞ'를 고려하게 된다. 이 'ᄉᆞᆺ/ᄃᆞ'는 釋讀口訣과 吏讀에 널리 쓰인 것인데 대표적인 용례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16-3a. ᄂᆞᄂᆞᆯ未尸ᄉᆞᆺᄀᆞ/ᄒᆞ겨ᄅᆞᆱ ᄃᆞᆫ
3b. 有ᄂᆡᄀᆞᄉᆞᆺᄭᅳ/잇은 ᄃᆞ로
3c. -ㅣᄀᆞᄉᆞᆺᄂᆞ/인 ᄃᆞᆯ
3d. -ㅣ尸ᄉᆞᆺᄂᆞᄋᆞᄆᆞᄒᆞᆷᄒᆞᆫ/읾 ᄃᆞᆯ ᄒᆞ고기ᄉᆞ셔

3e. ᄂᆞᄀᆞ矣ᄀᆞᆡ/ᄒᆞᆫ 디겨다
3f. 願爲內等者/願ᄒᆞᆫᄃᆞᆫ(寬興寺鐘銘 856)
3g. 白去乎等用良/숣거온 ᄃᆞᆯ ᄡᅳ아(淨兜寺造塔形止記, 1031)

3a-e)는 <華疏>에 나타나는 것으로 'ㅅ/ᄃᆞ'의 여러 환경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ㅅᄀᆞ/ᄃᆞᆫ, ㅅᄆᆞ/ᄃᆞ로, ㅅᄂᆞ/ᄃᆞᆯ, -ㅣᄅᆞㅅᄂᆞᆫ/잃 ᄃᆞᆯ ᄒᆞ-(되-)'등으로 의존명사 'ㅅ/ᄃᆞ'가 폭넓게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는 'ㅅ/ᄃᆞ'와 계사 'ㅣ/이'가 결합하여 축약된 '矣/디'를 보여 주는 것이다. f)는 新羅時代의 이두에 쓰인 '等'이 'ᄃᆞ'음의 表記에 쓰인 용례이고 g)는 고려시대의 吏讀에 쓰인 의존명사 '等/ᄃᆞ'의 용례로써 'ᄃᆞ'의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임을 보여 준다.

위의 예들에서 'ᄃᆞ'는 현대어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그 뜻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나 다음의 문맥에서는 좀더 분명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다.

16-4a. 信樂ㅣᄒᆞ 最勝ᄉᆞᄒᆞᄉᆞ 甚ㅣ 難ㅣᄒᆞ 得ᄃᆞᄒᆞᄎᆞᄀᆞ矣 譬ᄉᆞᄀᆞ 一切 世間ㅅ 中ᄒᆞᄉᆞ 而ᄆᆞ 隨 意妙寶珠ㅣ 有ᄀᆞ [如]ᄎᆞᄉᆞᄀᆞㅣㅣ <華嚴10,9>
4b. 佛塔ᄂᆞ 見白ᄉᆞᄀᆞ 時 當願衆生 尊重ᄉᆞᄀᆞ矣 塔 [如]ᄎᆞᄉᆞᄒᆞᄉᆞ 天人ᄋᆞ 供ᄂᆞ 受ᄇᆞᄉᆞ<華嚴8,6>
4c. 有ㅅ 無ㅅᄀᆞ 本ᄆᆞᄉᆞ 自ᄋᆞ 二ㅣᄀᆞ矣 譬ᄋᆞᄀᆞ 牛ᄋᆞ 二角 [若]ㅣᄉᆞᄉᆞ <舊仁15,3>
4d. 世間ᄀᆞ 一ᄉᆞ 異ᄉᆞᄀᆞ 不矣ㅣᄀᆞ矣 譬ㅅᄀᆞ 空谷ᄒᆞㅅ 響 如ᄎᆞᄉᆞᄒᆞ <金光13,15>

여기에 쓰인 '-ᄀᆞ矣'는 'ᄀᆞ/은(동명사어미) +ㅅ/ᄃᆞ(의존명사) + ㅣ/이(주격조사)'가 결합된 것이다. 이 '-ᄀᆞ矣/ㄴ디'는 그 뒤에 이어지는 '[如]ᄎᆞᄉᆞ/디ᄒᆞ-', '[如(若)]ㅣᄉᆞ/다ᄒᆞ-'와 호응하여 直喩表現에 쓰인 것이다. 이 'ᄀᆞ矣/ㄴ디……[如]ᄎᆞᄉᆞ/디ᄒᆞ-'의 直喩는 현대어로는 '한 것이 ……

과 같다'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 시대에는 强勢가 들어가 '……한 바로 그것이 (비유하면) ……과 똑 같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 'ㅅ/ᄃ'는 '同一한 바로 그것', '똑같은 그것', '틀림없는 그것'의 뜻을 가진 것이다. 중세국어에선 이 'ᄃ'의 강세적 의미가 當爲性을 나타내는 '홀 띠니라'에 남아 있으나 고대국어에 비해선 그 사용범위가 制限的이다.

이상으로 'ᄃ'는 '同一'의 뜻을 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는 의존명사로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형태임이 이해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3.4. ᄎᆞᆫ-, ㅣᆞᆫ-, ᄉᆞᆨᄀᆞᆫ, -ᄎᆞ의 生成

이 'ㅅ/ᄃ'의 형태를 기초로 하여 'ᄎᆞᆫ-, ㅣᆞᆫ-, ᄉᆞᆨᄀᆞᆫ, -ᄎᆞ, -ᄉᆞ'의 형태가 生成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들은 모두 '如(똑 같다)'의 뜻을 갖는 의존명사 'ㅅ/ᄃ'에서 파생된 것이지만 'ᆞ/ᄒᆞ-'가 연결된 형태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提起한다.

'ᄎᆞᆫ-'의 'ᄎᆞ/디'가 'ᆞ-'를 취한 것은 그것이 副詞形임을 추정케 한다. 부사형 'ᄎᆞ/디'는 依存名詞 'ㅅ/ᄃ'와 의미상으로 일치하는 形容詞 '*ㅅ/ᄃ-'를 想定하지 않고는 성립되기가 어렵다. 이 形容詞 '*ㅅ/ᄃ-'는 15세기 국어의 'ᄃᆞᆸ다', '답다'와 같은 뜻을 갖는 것이니 기실 이 'ᄃᆞᆸ다', '답다'도 기원적으로는 의존명사 'ㅅ/ᄃ'에서 파생된 것이다.[5] 이 形容詞 '*ㅅ/ᄃ-'에 부사형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ᄃ이'가 파생되고 이것이 축약되어 '디(ᄎᆞ, ᄉᆞ)'가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6]

'ㅣᆞᆫ/다ᄒᆞ-'는 형용사 '*ㅅ/ᄃ-'에서 心理的인 상태를 표현하는 '-아ᄒᆞ-'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붉-(赤)'에서 '불가ᄒᆞ(←붉+아+ᄒᆞ-)', 'ᄑᆞᄅᆞ-(靑)에서 'ᄑᆞ라ᄒᆞ-(←'ᄑᆞᄅᆞ+아+ᄒᆞ)'가 파생되는 것과 軌를 같이 하

5) 15세기국어의 문법에서는 'ᄃᆞᆸ다', '답다'를 파생접사로 처리하고 있으나 기원적으로는 형용사에서 온 것이니 이 立論에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ᄎᆞ는 본래 '디-'를 표기하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는 것이다.

'矢ㄴㅅ/딧ᄒᆞ-'는 '-ㄴㅅ/ㅅᄒᆞ-'의 구성이 후대의 문법과는 다른 것인데 이는 釋讀口訣에서는 비교적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이다.

17-1a. 爾ㅡㄴ ㅅㄱ 時ㅓ 智首菩薩ㅣ 文殊師利菩薩ᄭᅴ ᄭᅴ 問ᄌᆞ 言ᄒᆞᄃᆞ <華嚴1,4>

1b. [我]ㅈ [等]ㅣㅅㄱㄱ 風ㄴ 欽ㄴㅁㄴㄴᄃᆞᄫᆞ 故ㅿ 來ㅅᄌᆞᄋᆞ [此]ㅢ ㅁ 至ㅿㅁㄴㄴㅣ <華疏12,11>

1a)의 '爾ㅡㄴㅅㄱ'은 '그러한'의 뜻으로 '대명사 + ㅡ(처격조사) + ㄴ + ㅅ-'로 분석된다. 1b)의 '欽ㄴㅁㄴㄴᄃᆞᄫᆞ(ㅅᄫᆞ)'는 '欽ㄴ(어간)+ㅁ(어미)+ㄴ+ㅅ+ㅇ+ᄃᆞᄫᆞ'로 분석된다. 이는 'ㄴ+ㅅ'가 副詞語나 語尾 뒤에 連結됨을 보여 준다. '矢+ㄴ+ㅅ'의 연결도 ㄴ이 副詞形態 뒤에 연결된 것으로 보면 '矢ㄴㅅ-'의 구성도 형용사 'ㅅ/ᄃᆞ-'의 부사형에 ㄴ과 ㅅ가 연결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如'의 訓으로 쓰인 'ᄌᆞㅅ-, ㅣㅅ-, ᄌᆞ, 矢ㄴㅅ-'의 형태들이 의존명사 'ㅅ/ᄃᆞ'와 뜻을 共有하는 形容詞 '*ᄃᆞ-'에서 파생되어 '똑같은 그것, 同一한 것, 바로 그것'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정이 설명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4. 'ᄌᆞ/ㄷㅣ'의 文法的 機能 —— '如實法'

우리는 <華疏>에서 ᄌᆞ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사용된 것을 보아 왔다. 즉 형용사 [如]ᄌᆞᄭᅴ-, 부사(접속사) [如]ᄌᆞ, 故ᄌᆞ, 則ᄌᆞ, 卽ᄌᆞ, 今ᄌᆞ, 能ᄌᆞ, 善ᄌᆞ가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아 왔다. 이것은 <華嚴>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이미 變化가 일어나 能ᄌᆞ에 대하여 能矢

가 混用되었다. 그러나 <金光>과 <瑜伽>에 와서는 [如]ᄉᆞ(ㅇ)-만이 나타나고 다른 형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能ᄉᆞ, 善ᄉᆞ도 能ᄉᆞᆼ, 善ᄉᆞᆼ로 대체되어 이들 형태에선 ᄉᆞ의 기능이 이미 쇠퇴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金光>과 <瑜伽>의 [如]ᄉᆞ(ㅇ)-는 13세기에는 文語의 保守性 또는 表記法의 保守性에 의하여 ᄉᆞ의 흔적만을 보여 준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ᄉᆞ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는 <華疏>와 <華嚴>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華疏>와 <華嚴>의 '年ᄉᆞ/ >>나히', '離ᄉᆞ/ >>여희-', '免ᄉᆞ/ >>여희-'에 쓰인 ᄉᆞ는 末音添記이므로 그 문법적 기능을 논할 것이 못된다. 故ᄉᆞ, 則ᄉᆞ, 卽ᄉᆞ, 今ᄉᆞ, 能ᄉᆞ, 善ᄉᆞ의 ᄉᆞ는 [如]ᄉᆞ의 ᄉᆞ와 같은 형태이다. 이제 이 형태들을 대상으로 그 뜻에 대하여 考究할 차례가 되었다. 위의 2-1a)의 例文을 보자.

> [此]ㅣ 菩薩ㄱ [是]ㅣ 事 有ᄒᆡᄀᆞ ᄉᆞᆷ 故ᄉᆞ [是]ㅣ 事 有ᄒᆡᄉᆞᆼ [是]ㅣ 事 無ᄒᆡᄀᆞ ᄉᆞᆷ 故ᄉᆞ [是]ㅣ 事 無ᄒᆡᄉᆞᆼ<華疏1,5>

를 當時人의 文法을 고려하여 直譯하면

> 이 일 있으므로 바로 그와 똑 같은 결과로 이 일 있으며, 이 일 없으므로 그와 똑 같은 결과로 이 일 없으며

가 된다. 여기서 故ᄉᆞ를 '그와 똑 같은 결과'로 직역한 것은 因果關係를 강조하여 표현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故ㅿ와 故ㅣ도 같은 因果關係 表現이고 故ㅿ에도 確認法의 强勢가 있지만 故ᄉᆞ와 같이 '똑 같다, 틀림없다'는 뜻의 强勢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故ㅣ는 '故+ㅅ/ᄒᆞ-+오'로 분석되는 형태로 현대국어의 '故로'와 같은 것이다.

3-1a)의 例文을 보자.

若ᄂᆞᆫ 自ᄒᆞ 以ᄒᆞᅀᅥ 受用ᄒᆞᄀᆞᆫ ᄒᆞᆫᄀᆞᆫ 則支 安樂ᄒᆞᄒᆞᆯ 延年ᄒᆞᄒᆞᄂᆞᆫᄒᆞᄉᆞᆫᄀᆞ <華疏10,6>

에서 支의 기능을 살려 直譯하면

만약 스스로 受用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安樂하고 延年하고 할 것이며

와 같이 되어 則支는 條件에 대한 敍述을 强調하여 表現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4-1a)의 例文을 보자.

[是]ᄅᆞᆯ 念ᄒᆞᆫ 作ᄒᆞᆫ 已ᄒᆞᅀᅥ ᄒᆞᆫᄃᆞᆫᄀᆞᆫ 卽支 便ᄅᆞᆯ [之]ᄅᆞᆯ ᄒᆞᆫ 施ᄒᆞᆫᄀᆞ <華疏12,4>

여기서도 支의 기능을 살려 직역하면

이 念을 이미 짓고서는 곧 바로 (틀림없이) 이를 시행하며

가 되어 '卽(곧)'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卽ᄀᆞ도 '곧, 즉시'의 뜻으로 쓰인 것이나 卽支와 같은 强勢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故'의 경우와 같다.

5-1a)의 今支도 '바로 지금'의 뜻으로 강세를 준 것이고 6-1a)의 能支와 7-1a)의 善支도 이러한 강세를 넣어 이해하면 당시인의 表現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支는 現代國語의 文法에 준하여 접미사로 볼 수 있으나 '支ᄋᆞ-'에 준하여 보면 補助形容詞(助動詞) '*ᄃᆞ-'의 活用形으로 보아야 한다. 이

는 故ᄃᆞ를 '故+디'로 분석하지 않고 '故 + ᄃᆞ- + -이'로 분석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 결합은 '故ㅅ/ᄒᆞ-+오'와 같은 것으로 보면 쉽게 納得이 갈 것이다.

이 시대의 用言의 複合은 '語幹 + 語幹'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니 ᄃᆞ의 文法도 이러한 문법을 바탕으로 어미들 속에 배열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7] 이 문법을 통하여 'ㅅᄇᆞᄃᆞ호/ᄒᆞᄂᆞ디셔'에 쓰인 'ᄃᆞ/디'의 기능과 뜻을 分析해 보기로 하자. 12-1a)의 例文

父母ㅣ 孝事ㅅᄉᆞᆨᄀᆞ ㅣ 十ᄀᆞ 當ᄉᆞ 願ᄉᆞᆸᄀᆞ 衆生ᄀᆞ 善ᄃᆞ [於]佛ㅣ 事ᄉᆞ白ᄌᆞᄉᆞ 一切ㅣ 護ㅅᄒᆞ 養ㅅᄒᆞㅅᄇᆞᄃᆞ호<華嚴2,20>

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된다.

父母를 孝事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願하기를 衆生은 부처님을 잘 섬기어서 一切를 반드시 護하고 養하고 할지어다.

여기서의 ㅅᄇᆞᄃᆞ호는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强調表現이다. 우리는 15세기의 '홀띠니라'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當爲法으로 쓰이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의 'ᄃᆞ/디'도 그 '-디-'와 뜻으로는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 'ᄃᆞ'는 補助形容詞의 派生形인 점에서 그 排列位置가 15세기의 '-디-'보다는 자유롭다 할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그 用例가 적어서 다양한 분포가 나타나지 않고 ㅅᄇᆞᄃᆞ호의 形態만이 나타나고 있다.

11-0)의 '元ᄉᆞᄫᆞᄉᆞᄀᆞ'도 '으뜸 바로 그것이며'로 해석이 된다.

---

7) 古代國語에 있어서 助動詞 또는 補助形容詞에 대하여는 拙稿(2004)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필자는 또 앞의 글에서 고대국어에서는 先語末語尾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見解를 밝힌 바 있다.

信ㄱ 道ㅇㅣ 元矣ᄉᆞᆸᄀᆞᆫ 功德ㅣ 母ㅣᄆᆞ [爲]ᄉᆞᆫᄃᆞᄂᆞᆫᄀᆞ <華嚴9,20>

을 해석하면

信은 道에 있어서 으뜸 바로 그것이며 功德의 母가 되는 것이니

가 된다. 이 ᄉᆞᆸ는 뒤에 계사 'ㅣ/이'를 취하여 ᄉᆞᆸ가 명사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의존명사 'ᄃᆞ'에서 파생된 형태로 '바로 그것'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語幹, 接尾辭, 語尾에 섞여 쓰이는 ᄉᆞᆸ가 '똑같다, 同一하다, 틀림없다'의 뜻을 갖는 의존명사 'ᄃᆞ'와 어원을 같이 하는 형태에서 나온 것으로 12세기 전반기까지의 자료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들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이 ᄉᆞᆸ에 의하여 표현되는 내용은 古代國語에 있어서 하나의 敍法表現으로 널리 쓰였던 것으로 필자는 이를 '如實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시대의 ᄉᆞᆸ의 사용도 기실은 많이 衰退한 상태임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ᄂᆞᄒᆞᄉᆞᆸᄒᆞᆫ의 용례가 <華嚴>의 淨行品의 140 여 항목 가운데 처음의 3항목을 열거하는 데서만 사용되고 그 다음부터는 ᄉᆞᆸ가 생략된 ᄂᆞᄒᆞᆫ만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말하여 준다. 이 淨行品에서는 140 여 항목 전체가 처음의 3항목과 똑같이 강조되어야 할 內容임에도 불구하고 이 3항목 이후에는 ᄉᆞᆸ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 시대에 이 ᄉᆞᆸ의 有無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認識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또 이 'ᄉᆞᆸ/디'는 鄕歌의 예들을 통하여 볼 때 어미들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ᄂᆞᄒᆞᆫᄉᆞᆸᄒᆞᆫ의 한 형태에만 사용된 것도 ᄉᆞᆸ의 기능이 衰退한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5. 結語

借字表記의 ᄒᆞ는 鄕歌와 釋讀口訣에서 널리 쓰이었으나 그 解讀이 극히 어려운 것이었다. 釋讀口訣에서 ᄒᆞ는 '如'의 訓인 'ᄒᆞᄉᆞ-'와 그 부사형 'ᄒᆞ'의 표기에 자주 쓰이었다. <華疏>와 <華嚴>에서는 補助形容詞(助動詞)의 副詞形과 末音添記로도 폭넓게 쓰였으나 <金光>과 <瑜伽>에서는 '[如]ᄒᆞ(ᄉᆞ-)'로 제한되어 있다. 또 <華嚴>에서도 그 用法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ᄒᆞ가 12세기 前半期까지는 쓰이던 형태이지만 그 이후에는 그 기능이 거의 쇠퇴하여 化石으로 남은 것임을 말하여 준다.[8]

ᄒᆞ는 <華疏>에서는 一貫되게 쓰였으나 <華嚴>에 오면 이미 動搖를 보여 준다. 그리하여 中古漢字音으로 '지'이었던 ᄒᆞ와 ᄆᆞ(止)가 <華嚴>에서는 'ᄒᆞ/디'로 교체되는 現像들을 보여 준다. 이는 ᄒᆞ와 ᄆᆞ가 借字表記에서 '디'音으로 읽힘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華疏>와 <華嚴>에 쓰인 ᄒᆞ는 語幹으로 [如]ᄒᆞᄉᆞ-, 그 副詞形으로 [如]ᄒᆞ, 補助形容詞의 副詞形(故ᄒᆞ 등)으로 쓰이었고 離ᄒᆞ-와 같은 末音添記로, ᄉᆞᄇᆞᄒᆞᅀᅩ와 같은 敍法을 나타내는 形態로 쓰이었다. 末音添記를 제외한 'ᄒᆞ/디'는 依存名詞 'ᄃᆞ'와 語原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依存名詞 'ᄃᆞ'와 뜻이 같은 補助形容詞 'ᄃᆞ-'를 想定하여 이 형태에서 그 부사형이 파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 보조형용사의 副詞形이 接尾辭나 語尾와 같은 形態로 쓰이었다. 이 'ᄃᆞ-'에서 나온 ᄒᆞ가 '如'의 訓으로도 쓰였고 '똑같은 것', '바로 그것', '틀림없는 것' 등의 뜻을 나타

8) 11세기의 角筆資料인 유가사지론의 点吐釋讀口訣에는 이 ᄒᆞ가 '如'자의 훈을 표기하는 데만 사용되고 다른 형태와 결합하는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13세기 자료인 字吐釋讀口訣의 瑜伽師地論과 合部金光明經에서의 용법과 같다. 이는 法相宗 계통에서는 如實法의 敍法을 중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敍法의 표현은 話者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李丞宰外共著(2005) 參照.

내어 敍述 內容을 强調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敍法을 필자는 '如實法'이라 命名하였다.

以上으로 字吐釋讀口訣에 쓰인 支의 讀音, 機能, 意味를 전반적으로 설명한 셈이다. 이 '如實法'은 鄕歌나 11세기 이전의 국어를 해독하는 데 응용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金完鎭(1980), 『鄕歌解讀法研究』, 서울大出版部.
南豊鉉(1981),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南豊鉉(2000). 『吏讀研究』, 太學社.
李丞宰 外(2005), 『角筆口訣의 解讀와 飜譯 I』, 태학사
楊伯峻, 波多野太郎 外(譯)(1981), 『中國文語文法』, 江南書院, 東京.
太田辰夫(1981), 『中國語歷史文法』, 朋友書店, 京都.
南豊鉉(2004), 「時相의 助動詞 '在/ᄒᆞ/겨-'의 發達」, 「국어국문학」 138, 5-34.

〔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양지원 빌딩 5층〕
E-mail: namph1935@empal.com
접수일자: 2007. 09. 10.
게재결정: 2008. 01. 23.

釈読口訣に用いられた「攴」の形態と機能について

南豊鉉

借字表記の「攴」は郷歌と釈読口訣において比較的に広く用いられたが、その解読が極めて難しいものであった。釈読口訣において「攴」が「如」の訓である「攴ㅅ-」と、その副詞形「攴」の表記に用いられており、<華疏>と<華厳>では、接尾辞と用言の補助語幹と末音添記にでも用いられた。しかし、<金光>と<瑜伽>では、「[如]攴ㅅ-」と「[如]攴」の表記だけに制限される。これは「攴」が12世紀前半期までは広く用いられたが、13世紀前半期にはその技能が既に衰退して、化石にだけ残っていることを物語っている。

「攴」は<華疏>では一貫して用いられたが、<華厳>においては揺れを見せている。そして、伝統漢字音では「čiJであった「攴」と「ㄷ(止)」が<華厳>では「矢 (知/tiJに交替される現像を見せている。これは「攴」と「ㄷ」が借字表記において「tiJ音であったことを物語るものである。

<華疏>と<華厳>に用いられた「攴」は、形容詞「[如]攴ㅅ-」、その副詞形に「[如]攴」 副詞形接尾辞(故攴など)にで用いられ、「離攴-」のような末音添記に,または「ㅅㅌ攴立」のような叙法を表す形態に用いられた。末音添記を除いた「攴/tiJは、依存名詞「tʌ」と語源が同一のものと把握した。また、依存名詞「tʌ」と意味が同様の補助形容詞「tʌ-」を想定して、この形からその副詞形が派生したものと見た。これが副詞形接尾辞、語尾に混ぜて用いる形態などの文法形態に発展した。この「tʌ-」か

ら派生した「ᄎᆞ」が「如」の訓にも用いられ、「全く同じであるもの」、「同一そのもの」、「それ自体」などの意味を表す叙法、即ち如実法となる。

以上で、字吐釈読口訣において、用いられた「ᄎᆞ」の読音、機能、意味を説明したつもりであるがこれが郷歌を解読するにも役に立つ事を期待す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形容詞 [如]ᄎᆞᄂᆞ-, 副詞形のᄎᆞ/ti, 末音添記のᄎᆞ, 補助形容詞の*ᄃᆞ/tʌ-, 如実法, 郷歌解読.